

전략기동합대에 관한 소고



海 軍 大 學
中 領 新 景 碩 *

◇ 目 次 ◇

- | | |
|------------------------|-----------------|
| I. 서 론 | IV. 전략기동합대 요망능력 |
| II. 전략기동합대의 의미 및 인식 고찰 | V. 결 론 |
| III. 전략기동합대의 필요성 및 역할 | ※ 참고문헌 |

I. 서 론

우리 해군은 1953년 9월 한국함대를 창설한 후, 1956년 4월에 유엔함대로부터 동·서·남해의 전력에 걸친 해상작전지휘권을 인수¹⁾하고 단독 해상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방위와 국익보호를 위한 해군의 핵심전력으로 전략기동합대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 해군의 대양해군과 전략기동합대에 관련된 기사²⁾가 자주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전략기동합대에 대한 군내·외의

* 해군사관학교·해군대학·합동참모대학·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상륙함 함장, 해본 전력화/시험평가담당, 해군대학 상륙작전 교관(現)

1) 해군본부, 「한국함대사(4)」, 1963, p. 163.

2) 전략기동합대에 관한 주요기사로는 “21세기 통일 한국의 대양해군 전략”, 신동아 2000년 7월호; “해군전략기동합대 염원 이루어질까”, 주간한국 2001년 3월 28일; “한국 해군이 무적의 방패(이지스함)를 갖게 된다”, 월간조선 2000년 11월호, “대양해군의 비밀병기 6·6함대”, 신동아 2001년 9월호 등이 있다.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륙적인 사고와 우주항공의 사고에 익숙한 인사들은 국력에 걸맞지 않다는가, 항모전투단 수준의 전력으로 대양에서 장기간 독자적인 전략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을 잘못 이해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어 이 분들의 마음을 전략기동함대에 싣고 바다로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오늘날 한국 해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核心語 중의 하나인 전략기동함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되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해군이 指向하는 전략기동함대의 의미와 인식의 誤謬를 짚어보면서, 미래 합동작전과 합동작전 운영개념 구현을 위해 전략기동함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Ⅱ. 전략기동함대의 의미 및 인식 고찰

1. 전략기동함대³⁾의 의미

가. 전략기동(Strategic maneuver)⁴⁾의 의미

전략기동이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한 文獻은 없다. 따라서 전략과 기동을 분리해서 전략기동의 의미를 추론해 본다면 먼저, 전략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승리에 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 수단과 잠재역량을 발전 및 운용하는 술과 과학으로 정의⁵⁾하고 있다.

3) 우리 해군은 1989~1993년간 해군전략기획문서상에 전략기동함대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94년 이후 문서에는 주변국의 오해를 감안하여 기동함대란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01년 인트라넷의 해군 홈페이지에는 「한국형 기동함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 이와 유사한 전략기동(Strategic mobility)의 개념은 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지 군대와 장비를 운반하는 것으로 전구(Theater)와 전구간의 수송을 말하며 주 요소로는 항공수송, 선박수송, 장비와 전쟁지속물자를 분쟁예상지역에 미리 배치하는 사전배치 등이 속한다. 김정익, "중원전력을 위한 미군의 기동능력", 국방정책연구, 2000년 봄호, p. 130.

5)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집」, 1998.

다음으로, 기동하면 통상 세 가지 용어를 쓴다. Movement, Maneuver, Mobility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 Mobility라는 용어는 그 앞의 두 용어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Mobility라는 용어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Movement, Maneuver의 의미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다.

먼저 Movement의 의미는 이동이란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단순한 거리상의 변동을 뜻하는 것이다. 즉, 어떤 부대가 그 목적과 의미는 불문하고 A지점에서부터 B지점으로 옮겼다면 이는 바로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Maneuver란 사전적 의미로 “교묘하고 숙련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통상 적에 대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한 부대이동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이동하는 방법(A way of moving)일 뿐만 아니라, 적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전투준비를 위한 이동이며 단순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차기 작전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한 사고하는 방법(A way of thinking)이다. 이는 기동이란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사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기동을 전략과 기동의 합성어로 보면 그 의미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군에게 적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줌으로써 전쟁패배의 위험을 감소시켜 작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기동의 효과는 적의 취약한 지점에 최대의 전투력을 집중하여 국부적인 우세를 달성, 인원 및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식별된 적 중심에 전투력을 집중, 적을 불필요하게 집중 혹은 분산시킴으로써 적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 아군의 주도권 장악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간 및 공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실시됨으로써 당혹감과 공포심을 주어 심리적 교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나. 함대(艦隊, FLEET)의 의미

함대란 사전적 의미로는 2척 이상의 군함으로 편성된 해상부대⁶⁾를 말하며, 군사적 의미로는 행정 및 작전통제권을 갖는 사령관 또는 선임사령관의 사령부

6) 민중서림, 「옛센서국어사전」, 2000년

예하에 있는 함정, 항공기 및 육상 관할부서의 조직으로서 상당기간 원해에서 독립작전 수행 가능한 부대를 의미한다.⁷⁾ 함대는 “동해함대”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숫자를 앞에 붙여 1함대, 2함대, 3함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⁸⁾ 한편, 미 해군 역시 숫자를 앞에 붙여 3함대, 6함대, 7함대 등으로 몇 번째 함대임을 표시하고 있다.

다. 전략기동함대의 의미

전략기동함대(Strategic maneuver fleet)⁹⁾를 전략기동과 함대의 합성어로 본다면 전략기동함대의 사전적 의미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작전통제권을 갖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으며 상당기간 독립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 또는 과업을 수행하는 함정 및 항공기로 편성된 부대로서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한 이동을 실시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대를 뜻하는 것이다.

한편, 미 해군의 경우 전략기동함대(Strategic maneuver fleet)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완수해야 할 임무 또는 과업을 의미하는 “Task”¹⁰⁾를 붙여 함대사령부 예하 조직으로 기동부대(Task force), 기동전단(Task group),

7)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집, 전계서

8) 해군용어집, 해일교 1-1, 1998, p. 566.

9) 우리 해군의 전략기동함대 관련하여 군 통수권자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1997. 3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해군력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사하여 나라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해군의 「전략적 기동전력」을 구축하라고 처음으로 지시하였고, 2001. 3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머지않아 우리 해군이 오대양에서 국익을 지키고 세계 평화수호에 일익을 담당할 「전략기동함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0) 강영오 제독(예)은 Task란 용어와 관련해서 “Task Force를 임무전단, Task Group을 임무분대, Task Element를 임무단대 등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해군의 경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Task를 편의상 기동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강영오, “해양안보환경과 기동함대의 역할”, 국방논집 제35호, 1996, p. 49.

◎ 海洋戰略 第113號('01. 12)

기동전대(Task unit) 등을 사용하고 있다.¹¹⁾ 또한 미 해군의 항모전투단¹²⁾(CVBG : Carrier Battle Group)은 Task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1척의 항모, 2척의 이지스 순양함, 4척의 구축함 등 대략 7척으로 구성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동부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략기동함대의 사전적 의미와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Task란 용어의 의미 그리고 미 해군부대의 편성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전략기동함대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작전통제권을 갖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한 이동을 실시하며 특정작전 및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서 상당기간 원해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기동부대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해군본부에서는 전략기동함대의 개념 정의를 「해역함대에 대비되는 대양해군의 실체로서 상당한 기간 원해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 소형항모를 포함한 구축함급 이상 전투함과 적정수의 잠수함, 해상작전 항공기, 상륙함 및 기동군수 지원함 등으로 구성된 전력을 운용하여 평시 억제력을 제공, 적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소시켜 적 도발을 억제하고, 국지도발시 유연하게 대응, 확산방지 및 유리한 조건하에 분쟁의 조기 종결을 추구하고, 전면전시 즉응공세 및 입체 기동전으로 침략을 조기에 격퇴하여 해군의 전·평시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함대를 의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¹³⁾

11) 미 해군의 공식적인 기동부대(TF)에 대한 정의는 “특정작전 및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임시 혹은 준영구적인 함대의 부대조직”이다. 마찬가지로 기동전단(TG)은 “기동부대의 주임무와 관련있는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동부대의 지휘관에 의해 편성되는 기동부대의 예하 조직이다. 이들 임무조직들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만들어지지만 각각의 임무에 따라 사전에 편성계획은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7함대의 항모기동부대는 CTF70으로 되어 있다.

12) 항모전투단은 과거에는 평시 행정조직상 항모는 함대 항공사령부 예하 항모전단에, 순양함과 구축함은 순양함, 구축함 전단에 분리되어 소속되어 있었고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때만 항모기동부대(Carrier task force), 항모기동전단(Carrier task group)을 형성하였다.

13) 해본전략 33065-15('01. 5. 9), “대양해군 관련용어 정의 정립 시달” 참조

2. 전략기동합대에 대한 인식의 誤謬

한국 해군이 지향하는 전략기동합대에 대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전략기동합대를 보유하면 주변국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군내·외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誤謬를 제시함으로써 전략기동합대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해 보아야 하겠다.

가. 전략기동합대를 미 해군의 항모전투단과 유사한 규모로 보는 관념

이는 전략기동이란 용어의 사용에 따라 마치 미국의 대형 항모전투단과 같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격세력이나 적 영토에 직접상륙, 독립적 군사전역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 원정이 가능한 전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우리 해군의 전략기동합대는 적 전쟁 수행기반 및 항전의지의 파괴와 같은 전략적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자의 입장에서 최소 억제력을 제공,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여 적 해양도발을 억제하고, 국지도발시 유연하게 대응, 확산방지 및 유리한 조건하에 분쟁의 조기 종결을 추구하고 전면전 시 즉응공세 및 침략을 조기 격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기존 해역함대의 전력을 보강하고, 보강된 해역함대의 전력을 차출하여 전략기동합대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관념

현 해역함대의 전력은 3,500톤급 구축함 및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으로 구성된 대북 위주의 연안방어전력이다. 향후 해역함대를 보강하는 수준이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과 노후화된 기존 호위함이나 고속정을 대체하는 수준에 국한된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해양으로부터 적지 중심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술항공기,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가능한 상륙전력 등의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현 한국군의 합동작전개념인 입체기동전¹⁴⁾ 수행이 곤란할 것이다.

14) 입체기동전 개념은 지·해·공 전력을 이용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지로의 신속한 기동으로 적의 전략적 중심 및 중심강타를 통하여 적의 전투의지를 마비시켜 최소의 전투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개념이다.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0 합동작전」, 1998, p. 63.

● 海洋戰略 第113號('01. 12)

또한 합참에서는 미래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Concept)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Vision)를 근간으로 정보전 위주의 통합전투를 구현하고자 육·해·공군 合同作戰¹⁵⁾에 의한 전력운용의 統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전장통제능력을 파괴 및 마비시키는 합동전장 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합동전장 운영개념은 합동 차원의 군사력 건설개념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합참의 합동전장 운영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전략기동합대를 보유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 해역합대의 전력이 극히 제한된 사거리 내에서 지상군의 함포지원과 연안에서의 해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리적 공간과 전자기적 공간 및 가상(Cyber)공간 등의 확장된 전영역에서의 통합전투를 구현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래 위협의 축이 지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해양으로 변화할 시 해역합대의 차출된 전력으로는 영토 외곽에서 최일선 방위군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어 합동전장 운영개념을 구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역합대의 전력을 보강하고, 보강된 해역합대의 전력을 차출하면 전략기동합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관념은 마치 육군이 전략예비부대를 배비시키지 않고 전방군단의 전력을 보강한 후 전방군단에서 별도로 전략예비부대를 조성하여 작전을 수행하면 된다는 사고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육군은 합동전장 운영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상·해상·공중의 전작전공간을 이용하여 전차/장갑차/헬기 등의 전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입체고속 기동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해군이 합동전장 운영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해역합대와 수상함, 잠수함, 상륙전력, 전술항공 등 균형된 전력구조를 갖춘 전략기동합대를 보유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15) 합동작전이란 육·해·공군 중 2개군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작전으로 각군의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투력 상승효과를 창출하여 전력운용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전이다. 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 요약집」(합동참모본부 참고교범), 1999, p. 78.

다. 전략기동합대를 공군의 항공우주군이나 전략폭격 전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군이란 우주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과 전략정찰기, 적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는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다목적 첨단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구비하는 것이며, 전략폭격이란 적국의 전쟁지속능력을 분쇄하기 위하여 주요 군사시설, 물자, 저장소, 교통망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력의 중추지역에 대한 전략폭격을 하는 개념으로 항공전역에서 공중우세 달성은 물론 공군력의 운용을 우주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나, 전략기동합대의 작전영역은 상당기간 원해에서 독립작전으로 수행하고, 전력운용은 적국의 전쟁지속능력 분쇄보다는 평시 억제력을 제공, 적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소시켜 적도발을 억제하고, 국지도발시 유연하게 대응, 확산방지 및 유리한 조건하에 분쟁의 조기 종결을 추구하고, 전면전시 즉응공세 및 입체 기동전으로 침략을 조기에 격퇴하는 실전적 억제전력이라 할 수 있다.

Ⅲ. 전략기동합대의 필요성 및 역할

1. 전략기동합대의 필요성

전략기동합대의 필요성 및 역할과 관련해서는 기획문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행 연구문들에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기동합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기동합대가 필요한 이유와 그 역할을 戰史와 국가이익 및 국방목표달성 측면과 합동작전/합동전장운영 측면을 위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戰史를 통해 본 기동합대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시 태평양에서 주요 해전은 태평양이란 공해상에서 <표 1>과 같이 미·일간 기동합대간 교전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기동합대 패배는 해양통제권/해상교통로 상실과 전쟁지속능력 저하로 이어졌으며 태평양전쟁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 海洋戰略 第113號('01. 12)

만일 일본이나 미국이 대양에서 독립작전이 가능한 기동함대를 보유치 않고 본토를 방호하기 위한 해역함대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였다더라면 해역함대에서 차출된 전력으로 기습적인 선제공격이나 일정한 수준의 해상전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태평양에서 해양통제권 확보 및 해상교통로 보호가 원천적으로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전에서 패배가 미·일본토로 전장지역이 조기에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해전의 결과가 주는 함의는 해역함대 외에 원해에서 적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는 기동함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 태평양 해전시 미·일 기동함대 교전결과¹⁶⁾

해 전	참가부대(척수)		피해척수(침몰/대파)	
	미 국	일 본	미 국	일 본
진주만 기습	·	5(33)	6/12	6/0
미드웨이해전	3(44)	4(127)	2/0	5/0
솔로몬해전	3(28)	3(53)	0/1	2/3
과달카날해전	2(30)	1(32)	5/9	6/3
필리핀해전	7(112)	5(55)	0/3	6/3
레이테해전	11(152)	4(79)	5/7	18/20
누 계	26(366)	22(379)	50(18/32)	72(43/29)

16) 미·일 해군의 항공기 및 잠수함 교전결과는 생략하였으며 기동부대 참가척수는 각종 해전사 문헌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항공모함이 참가한 척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전의 세부 교전내용은 해군대학, 「세계 해전사」, pp. 283~367, 1999. 참조 및 이정수, 「제2차 세계대전 해전사」, 양우문화, pp. 217~303 요약, 1999. 참조

나. 국가이익/위협 의 변화와 주변국의 해군력에 대비하여 국익보호수단으로의 필요성

국가이익의 형태는 분류방식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겠으나 국가의 존망과 직접적 관계를 갖는 사활적 이익과 고유한 전통 및 생활양식과 관계되는 문화/사상적 이익 그리고 이익의 창출과 번영에 관계되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사활적 이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된다. 위협의 형태는 이러한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변화된다. 사활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개념)침공 또는 생활공간 제한의 형태로 나타나며, 문화/사상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거의 표출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정신과 문화를 서서히 잠식해 가는 잠재적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협의 형태는 수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미래의 주 외부위협은 바다로부터 위협이 될 것이며 전쟁으로 발전시 영토점령과 같은 사활을 거는 결전적 형태는 빈도가 희박해지고, 문화/사상적 침투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군사/외교적 위협이나 소규모 분쟁 또는 국지전 형태가 보다 많아질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적 분쟁, 갈등, 국지전의 빈도는 많아지고 있다. 인종/민족,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국지적 전쟁,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이어지는 마찰, 새로운 해양법 시행에 따른 각종 해양 분쟁 그리고 일부국간의 영토분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형태의 각종 국제적 갈등과 분쟁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양을 둘러싼 이해당사국간의 마찰과 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남사군도 문제, 조어도 문제, 대만해협 문제 등은 우리의 해양안보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 확정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은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 海洋戰略 第113號('01. 12)

특히, 통일 후에는 주변국과 사활적 이익과 관계되는 전면적 전쟁형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나 강대국간의 패권경쟁/분쟁에 휘말린 대리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주변국의 해군력은 <표 2>에서 보듯이 미국과 러시아는 해양통제 및 해상으로부터 전력투사가 가능한 기동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3개의 해역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원해에서 장기간 독립작전이 가능한 프리깃급 이상 대형 수상함 및 잠수함, 항공기 등의 전력을 다수 보유하여 기동함대로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해군은 대양해군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45,000톤급 항모도입과 1,000해리 방어를 거론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해군의 해역함대와 유사한 5개의 지방대와 이른바 8·8함대라 불리는 호위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 해군력은 기동함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국가이익/위협의 양상변화와 주변국의 해군력을 고려해 본다면 다양한 형태의 각종 국제적 갈등과 해양분쟁에서 해양자원의 보존과 해상교통로 보호, 해적 피해방지 등의 국익보호¹⁷⁾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원해에서 적의 해양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해양통제형 전력인 전략기동함대와 근해에서 적을 방어할 수 있는 해양거부형 전력의 동시 구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17)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은 월간 신동아 2000년 7월호 인터뷰에서 “대양해군 건설의 대전제는 국익보호를 타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해양환경을 살펴보면,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고 해양개발이 확대되는 등 해양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해양이익을 증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체제 붕괴로 동북아시아의 위협축선이 다변화하고 분쟁 양상이 다양해지는 현상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해양에서의 이런 위협과 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융통성과 기동성을 보유한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양해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은 월간 신동아 2001년 7월호 인터뷰에서 “통일한국에서는 해군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최일선 방위군이 된다. 기동함대 창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해군은 통일한국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표 2〉 주변국 해군력 현황

구 분	미국(7함대)	러시아(태평양함대)	중 국	일 본	
잠 수 함	7~8	17	71	16	
항 공 모 함	1~3	-	-	-	
순 양 함	6	2	-	-	
구 축 함	18~20	10	18	9	
프 리 깃	4	42	35	46	
해 안 초 계 함	-	13	676	3	
소 해 함	2	52	70	34	
상 륙 함	6~9	25	140	6	
기 타 함 정	34	267	199	39	
전 투 기	200(항모탑재)	71	435	90(P-3C)	
초 계 기 / 헬 기	150~160(해군/해병)	71	176	100	
계	함 정	68~72	428	1,209	153
	항 공 기	350~360	142	611	190

※ 출처 : Military ballance/국방백서 2000, Internet

다.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상전력

우리 군은 국가안보목표의 범주 안에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1994년 3월 10일 개정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국방목표는 총체적 국가안보를 위한 광의의 개념으로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역의 안정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유지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⁸⁾

18) 장문석·김현기,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미래전략 선택방향”, 정책연구보고서 98-18, 국방대학교, 1998, p. 440.

◎ 海洋戰略 第113號('01. 12)

특히, 남북 평화 공존기를 거쳐 통일 후 미래의 주 전장은 원해와 근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대륙적 특성과 해양적 특성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취약점을 보완/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해군은 원해에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해양통제형 전력과 근해에서 적을 방어할 수 있는 해양거부형 전력의 동시 구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의 현실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해양거부형 전력이므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응하여 국방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해양통제형 전력인 기동함대를 확보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 미래 전장양상의 변화에 적합한 핵심전력

제3의 물결 지식정보화의 새로운 시대에서의 전쟁은 정보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아측의 정보능력과 흐름을 보장하면서 상대측의 정보능력과 흐름을 파괴/마비시키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전쟁수행 방식, 작전운동, 부대구조, 교육훈련, 군수지원 등도 산업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혁되지 않을 수 없다.”¹⁹⁾

즉, 미래전은 고속화된 입체기동전과 전·후방 동시 전장화에 의한 국가 총력전으로 수행될 것이므로 단일군 작전에 의한 승리는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능력의 급격한 발전과 전쟁비용에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는 전쟁의 성격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육·해·공군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와 노력의 통합에 의한 합동작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차 해전양상은 해군의 대지공격능력 및 지상작전에 대한 영향력 증대, 대지공격용 유도탄 무기체계의 발전(사정거리 연장, 파괴력, 정밀도, 통제기능 등의 향상)에 따라 대지상 전략·

19) 권태영, 21세기 군사혁신과 전쟁양상, 합참지 '97년 7월호

전술표적에 대한 해군의 직접적 공격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기동성을 이용한 신속한 전진배치 및 대지공격과 함재기의 직접적인 전략·전술적 항공강습, 해병대 공지작전부대 투사 등을 통하여 지상작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즉, 향후 바다에서의 전쟁에는 수중, 수상, 공중, 우주 및 전자기적 환경을 포함하는 전영역에서 공격 및 방어진술을 완벽하게 통합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수평선 너머 원거리에서부터 적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²⁰⁾ 이를 적과 대응상황의 관점에서 보면, 광역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적의 중심을 결정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적의 취약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적의 취약점 노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속도로 상황을 전개 및 변화시키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네트워크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C4I 체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해군력은 각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쟁목표에 집중시키는 데 용이한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 즉, 소형 경함모에 탑재된 전술항공기와 Aegis급 함정 및 중잠수함에 탑재된 함대지 미사일, 바다로부터의 작전적 기동이 가능한 LPX, 상륙작전 전용헬기 등으로 구성된 전략기동합대의 전력은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여 지상군의 측방을 보호하고, 해양을 통하여 적의 측후방으로 우회할 수 있으므로 지상군에 비해 기동성과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군에 비해 보다 지속적이거나 충분한 양의 강력한 중심타격을 지상에 투사할 수 있으며 전구 유도탄 방어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 국가이익 및 위협양상의 변화에 적합한 전략기동합대는 광활한 해역을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주요 도시와 핵심적 산업시설 등에 대한 방호능력을 제공하며, 결정적 공세작전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사정포와 정밀유도무기, 해군 항공전력, 전자적 공격과 방어진력 등으로 강력한 전력투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역합대는 정보능력의 제한, 합동작전을 위한 기동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기동합대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20) 노훈, “군사교리와 조직체계의 혁신개념”,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 한국국방연구원, 1998, p. 119.

2. 전략기동함대의 역할²¹⁾

가. 평 시

(1) 대북한 및 대주변국 도발 억제

대북한 보복적 억제전력으로서 적의 선제공격에 생존성 있는 보복수단이며, 응정보복 가능한 실효성 있는 타격수단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 및 원해에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도발을 억제하고 필요시 해역함대 증강을 위한 보완전력으로 운용한다.

(2) 해양안보 증진 및 국민의 해양활동 보장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해 해양자원 개발시 아국 자산/지분을 보호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국익보호 의지 과시를 위한 해군력을 현시하기 위해 외국에 상주하는 아국기업, 교민보호 및 이익을 증진하고 해군 외교활동으로 국위선양 및 국자간 상호신뢰를 구축한다.

(3) 국지적 해양분쟁시 최일선 위기관리

분쟁발생 가능 해역에 정기, 부정기적 현시로 아국의 SLOC 보호 의지를 과시하고 상황 고려 해당해역 항로대 선단호송 임무를 수행한다. 국지분쟁 발생시 분쟁해역에 신속 전개, 주도권을 장악하고 분쟁상황에 신속대응, 확산방지 및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한다.

(4) 전쟁 이외의 작전활동(OOTW)

해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전쟁 이외의 작전을 살펴보면 재해방지, 재난구조, 대민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분야와 해적선 활동방지, 불법이민방지, 대테러

21) 강영오 제독(예)은 현존하는 기동함대를 수상전투단과 항모전투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전투단은 전략적 여지와 전략적 방어, 해양통제와 해양투사, 해양시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강영오, "해양안보환경 전망과 기동함대의 역할", 전개서, p. 53.

행위²²⁾ 등의 국제범죄 방지분야와 국제평화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주도하의 국제평화 정착/유지작전 및 비전투요원 철수작전에 참여하는 등 우방국 해군과 연합으로 PKO 활동을 위한 지원투사²³⁾를 수행한다.

나. 전 시

(1) 유리한 작전여건 조성을 위한 해양통제/거부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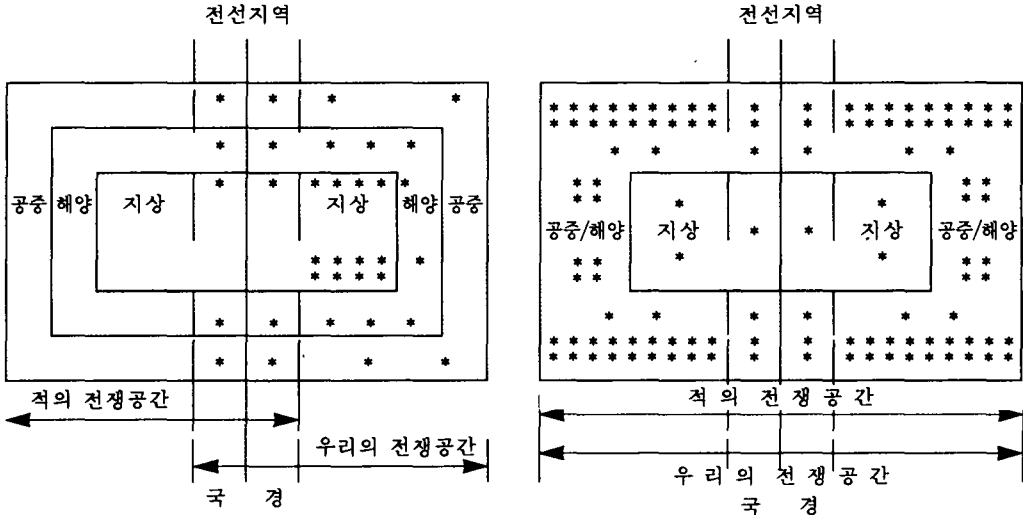
대북한 해양통제, 대주변국 해양거부권을 확보, 우군의 기동 여건을 조성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여 전시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토록 하고, 수상·수중·항공의 균형된 입체전력으로 해상전의 승리를 보장하며, 지·해·공 합동작전을 지원한다.

(2) 해상에서 육지로 전력투사를 통한 전략적/작전적 입체기동전 수행

지금까지 우리의 전쟁공간에 대한 분담개념은 그림 1과 같이 지상군, 해군, 공군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의 전쟁공간에 대해서는 분담개념이 발전되지 못하고 대칭적인 개념으로 대응하였다. 즉, 지상군은 우리의 지상을 담당하니까 이와 대칭하여 적의 지상과 지상군을 담당하고 해군과 공군은 우리의 해양과 공중을 책임지니까 적의 해양과 공중을 각각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예를 들면, 지대지 미사일은 지상에 존재하고 적의 지상과 지상군을 중점적으로 공격한다는 이유로 지상군의 소속으로 인식) 그러나 이러한 인식으로는 적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항공기나 정밀유도무기 등을 위주로 적 지상의 핵심표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현대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현대전에서 지상군은 우리의 지상도 확실히 담당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해군력은 적의 어느 공간이라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22) 테러행위(Terrorism)란 일반적으로 정치, 종교, 이념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정부 혹은 사회에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해군이 전략기동합대의 전력으로 바다로부터 육지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대형 수송함(LPX)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가이익 차원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타 軍種보다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지원투사(Assistance projection)란 재난구조, 지원을 위한 군사력을 해양으로부터 대규모로 신속한 전개, 구조 및 지원작전을 실시하는 평화적 군사활동으로서 폭력적 의미로 사용되는 무력투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의 밀도 : 중요도를 표시

※ 출처 : 박휘락, 「현대군사연구」(서울 : 법문사), 1998, p. 75.

그림 1. 지금까지의 전쟁공간 인식

그림 2. 장차의 전쟁공간 인식

이는 장차전의 전장공간이 그림 2와 같이 변화되면 적 지상지역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상전력에 의한 공격보다는 해군력에 의한 공격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해군력의 특성인 기동성, 접근 가능성 및 내구성을 활용하여 분산된 위치로부터 맞춤형전력을 배치하여 적의 전략/작전적 중심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작전적 타격전력으로서 적에 대한 해양에서의 전략적 포위를 달성하고 전략기동함대의 장거리 정밀타격자산으로 적의 전쟁지도본부 및 지상전술, 전략/작전적 목표를 타격하여 전쟁의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해상중심의 입체기동전을 수행한다면 합동작전목표를 신속하고도 결정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이다.

(3) 장차 합동작전에서의 핵심전력으로 운용

(가) 망중심 전투수행의 핵심전력

향후 전략기동함대는 적으로 하여금 불리한 위치에 있도록 機動的한 후 협동교전능력(ECE)을 포괄하는 망중심 전투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것이다.

망전투 중심의 개념은 전반적인 指揮統制의 바탕 위에 정보구조를 통하여 전장을 인식하고 관리하게 되며 전장의 인식과 관리의 틀 속에서 감지기와 자료를 융합하고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통하여 증폭되고 개선된 전장 인식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전장 인식은 실질적인 협조 및 대비가 가능토록 해준다. 이에 따라 작전을 집행함에 있어 작전의 템포가 증가하며 즉응성이 증진되고 위험성이 적어지며 적은 비용으로 전투효율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즉, 망전투는 지휘속도를 증가시키며, 지휘관 의도에 맞게 해당부대가 밑에서부터 위로(Bottom up) 대비 또는 자율적 同時統合²⁴⁾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망중심 전투는 전투와 관련된 모든 부대,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결 또는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창출된 힘으로 전투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대가 지휘관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체계를 이용하거나 기타 망중심 작전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전장 인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전투는 종래의 모호한 상태 전투에서 관련된 모든 인원과 부대가 전장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²⁵⁾ 이와 같은 망중심 전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 중의 하나인 협동교전능력(CEC :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²⁶⁾은 분산된 다수의 플랫폼에 탑재된 다수의 센서와 무장을 공유하여 교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념으로, 해상 또는 공중의 어느 플랫폼에서라도 적정을 탐지하여 이를 실시간에 데이터를 전파하여 제3의 플랫폼 또는 합동표적에 대하여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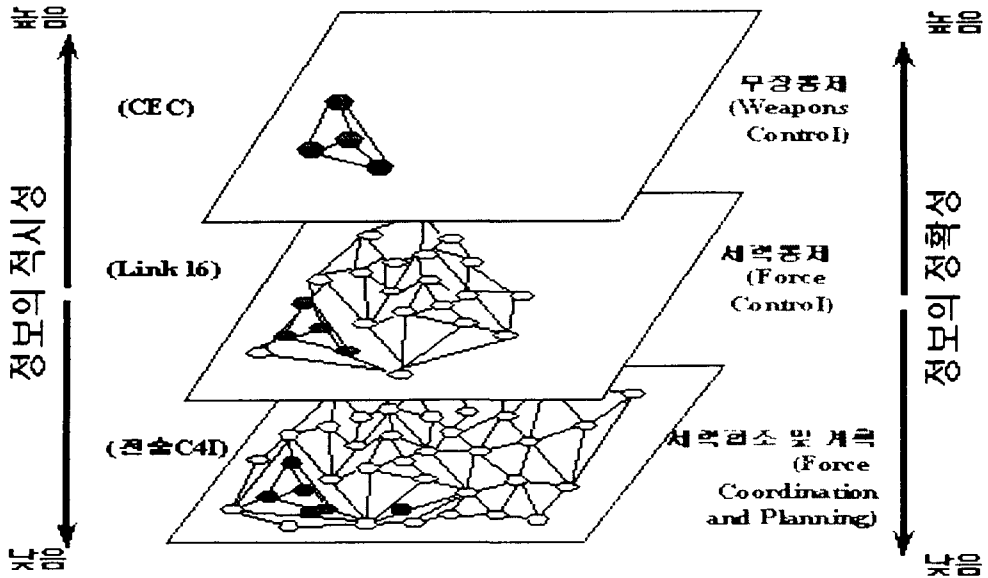
협동교전능력은 전략기동합대를 구성하여 작전중인 각종 함정의 센서와 指揮統制, 무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높은 전투력과 방호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체계이다.

24) 자율적 同時統合(Self synchronization)은 어느 부대, 지휘관, 참모 등이 자신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장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인식하고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5) 김영길, "미래 해상전 수행개념 : 망중심 전투개념", 「주간국방논단」 제761호, 국방연구원, 1999, p. 14.

26) 박종원, "미 해군의 함대전투실험", 해양전략 제105호, 해군대학, 1999, p. 24.

해상 및 합동전력 네트워크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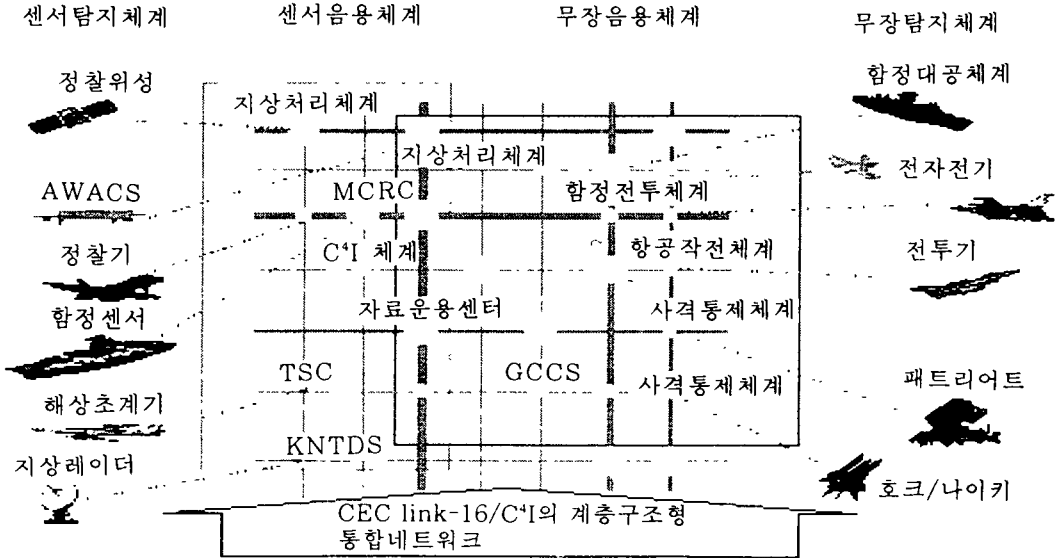
※ 출처 : <http://kida.re.kr/jugan/jugan779.htm>

그림 3. 해상 및 합동전력망 개념

이 체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망중심의 전투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해군전력과 합동전력의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은 정보체계구조 기본골격과 그림 4의 네트워크 연결구조의 실현이 필요할 것이다. 무장통제와 같은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초단위 미만의 사격통제 수준으로 요구되는 적 미사일 요격에는 CEC 네트워크를, 세력간의 협조와 같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Link-16(현재의 해군 KNTDS에서 사용하는 Link-11 수준) 네트워크를, 임무기획과 협조와 같이 비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전술 C4I 체계 네트워크로 연결이 필요할 것이다.²⁷⁾ 이러한 망중심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동합대는 장차전의 합동작전시 핵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력이다.

27) 김영길, <http://kida.re.kr/jugan/jugan779.htm>, "협동교전능력(CEC) 개념과 구역방공 효과 제고 방안", 2000. 10.

CEC 이용 합동방공전력망 연결개념



※ 출처 : <http://kida.re.kr/jugan/jugan779.htm>

그림 4. CEC 방공전력망 연결개념

(나) 해군 화력지원(Ring of fire)의 핵심전력

미 해병대의 “바다로부터의 作戰的 機動(OMFTS : Operational Maneuver-From the Sea)” 개념은 연안의 전투공간에서 合同火力支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미군은 육상에서 상륙한 合同軍에게 해군의 화력을 제공하기 위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해군 화력지원개념(Ring of fire)이다. 이 개념은 해군이 육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하나의 원둘레에 배치시키고 필요에 따라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모양이며, 이런 모양을 본따서 Ring of fire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²⁸⁾

28) 박종원, 전계서, pp. 26~28.

장차 한국군의 합동작전에서 Ring of fire 작전개념은 그림 5와 같이 육지에서 작전하고 있는 合同軍이 화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정찰 및 탐지자산인 군사위성, JSTARS, 정찰항공기, 무인정찰기, 아군관측자에 의해 타격해야 할 적을 탐지하여 이것을 전략기동함대의 지휘함에 실시간에 전파하게 되며, 지휘함에서는 타격수단을 보유한 이지스급 구축함 또는 KDX급 구축함에 직접 화력지원을 지시하거나 LPX에 설치된 지원화기협조본부(SACC : Supporting Arms Cooperation Center)에 지시하여 지원화기협조본부에서 화력지원이 가능한 함정에 지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함정은 지정된 표적에 대하여 화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때 화력지원을 위한 모든 표적정보는 지상공격전투체계(LAWS : Land Attack Warfare System)를 장비한 모든 부대에 실시간에 전파되며, 기입력된 데이터와 연결되어 화력지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무장을 권고하게 된다. 지상공격 무기체계는 화력지원 요청에서 무장의 발사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며, 정찰 및 탐지수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바로 무장지원을 위한 자료, 즉 사격제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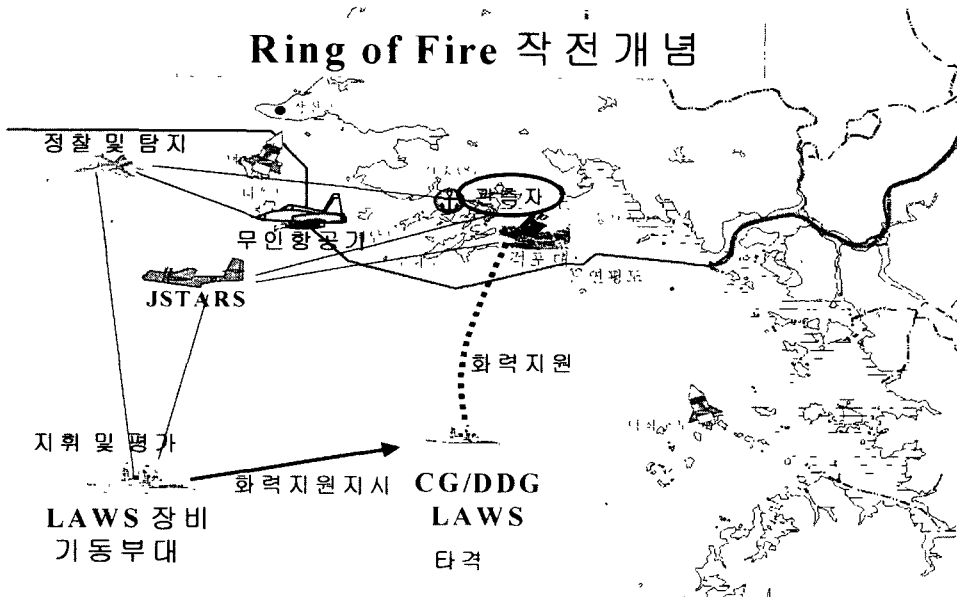


그림 5. 전략기동함대를 이용한 Ring of fire 작전개념

이로써 확인된 적과 단시간에 교전 후 다른 표적으로 신속한 전환도 가능토록 해준다. 따라서 전략기동함대의 경항공모함에 탑재된 전술항공기, 중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에 탑재된 대지유도탄, 전술항공기, 사거리 연장탄(ERGM : Extended Range Guided Missile) 등을 Ring of fire 무기체계로 활용하여 미래전에서 대지공격시 운영할 수 있다.

다. 합동방공 작전수행

현대무기의 고정밀도와 살상률 증가는 단 한번의 기습공격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공중위협²⁹⁾에 대한 대공방호가 더욱 중요시된다.

특히, 정밀 유도무기는 주요 전략목표를 타격함으로써 심리적, 물리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장환경은 대륙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방의 중심이 협소한 반면 그만큼 전역 미사일 방호의 면적이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차 전략기동함대의 Aegis급 함정에 탑재되는 장거리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대공 위협방향 및 거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면 합동방공작전 차원의 광역 대공방어(Wide-area defense)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IV. 전략기동함대 요망능력

1. 기본방향

미래의 해군력은 예상되는 불특정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지역국가들과 협력적 안보를 추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전략적 선택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역내 국가의 일방적 도전을 견제 또는 억제하는 한편, 지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협력적 안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념과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9) 공중위협은 과거에는 항공기가 주 위협이었으나 미사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항공기의 특성은 고속화, 다목적화, Stealth화, 무인화로, 미사일은 장거리화, Smart화, ECCM/Stealth화, Sea-Skimming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 海洋戰略 第113號(01. 12)

이러한 관점에서 해군의 전략기동함대는 미래의 국방목표와 정책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전력이며 기동함대는 상대적 국력을 고려시 척수면에서 주변 강대국 해군과 균등할 수 없으나 평시, 협력적 안보활동과 유사시 전략 제후를 위하여 질적인 면에서 주변국 해군의 가장 우수한 함정과 균등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양통제형 전력으로서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해역함대를 지원하여 주도적 감시와 방어작전, 공세작전과 강습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해역함대의 작전범위를 벗어나는 감시 영역권에서의 지역해 및 원해작전과 대규모의 해상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필요시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의 관심해역에서 단독 및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즉, 평시에는 국제협력활동 지원, 평화유지군의 역할, 군사외교 활동 및 해외 위기관리 등의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저강도 분쟁으로부터 무력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형태에 대처하고 장기독자 작전수행을 위해 적 해역내 또는 원해/해외 등 타작전 요소의 지원이 제한되는 해역에서 장기간 독자작전을 수행하고 원거리 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작전능력³⁰⁾

가. 지휘·통제 및 정찰 감시능력

미래전은 멀리 보고 멀리 타격하는(Deep see deep strike) 전투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체계를 탑재하여도 먼저 적에게 탐지된다면 수세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광대역에 걸쳐 분산된 비접촉 전투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각 플랫폼에서 탐지한 위협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 판단하고 최적의 무기체계로 대응해야만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기동함대는 위와 같은 능력을

30) 해군본부, 「해군비전 2020」, pp. 111~114, 요약

지난 지휘·통제체계를 갖추고 정보작전능력을 구비하여 적의 탐지를 거부하면서 우군의 탐지체계는 능력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타군이나 위성으로부터의 정보수집 및 전파체계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함대는 지속적인 정찰·감시를 위해 자체에 항공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육상발전 항공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전략기동함대가 원해 작전시는 이러한 요구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나. 방공능력

전략기동함대 및 해역함대 방호를 위해서는 저고도 및 중고도 표적 탐지체계와 광역, 구역 및 점방어체계를 포함하는 대공방어망을 구성해야 한다.

공군으로부터의 엄호는 우리의 EEZ내에서 전략기동함대가 작전한다 하여도 지원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 아울러 함재기로 자체 항공초계 및 요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광역방어는 함대지, 함대공, 공대함 등의 미사일과 적 항공기 등의 각종 공중위협체에 대하여 적어도 150km 이내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중고도 및 고고도 구역 방공능력을 구비하여 실질적으로 적의 위협이 전략기동함대와 국토내 도달하기 전에 해상에서 차단 및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성 및 기타의 탐지체계와 연계된 탐지 및 추적능력을 보유하고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필요시 전역 방공체계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적지 중심작전능력

한국군의 합동작전개념인 입체기동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다로부터 적지 중심작전능력을 보유해야 하나 현 해역함대의 전력은 적지 중심작전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합동전개념을 구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전략기동함대는 수상, 수중, 항공의 장거리 대함/대지 정밀타격능력 및 원거리 초수평선 상륙작전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라. 작전지속능력

기동함대는 국제적 협력, 평화유지 활동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장기간 위해 작전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상기동 군수지원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전기동함대 함정은 해상상태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대형화되어 내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3. 전력구조

전략기동함대는 3개의 기동전투전단으로 편성되며, 1개의 기동전투단은 적정 수준의 수직이착륙 유인항공기와 크기가 현재 항공기의 1/3 규모로 축소된 원격조정 가능한 무인항공기 및 대지공격용 유도무기를 탑재하여 충분한 타격능력을 보유한 2만톤급 규모의 소형 경항모 1척, 함대 대공방어와 대지/대수상함공격이 가능한 이지스급 구축함 1~2척 및 KDX-II 구축함, 함대 대잠방어 및 대지공격용 유도탄을 적재하고 장기간 해중 작전능력을 보유한 중잠수함, 대잠항공기와 현재 성분전단 예하에 편성된 상륙, 기뢰, 구조 및 지원 등의 성분작전부대를 전략기동함대 예하에 편성함으로써 작전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편성개념은 3개 해역이나 외해의 작전을 위하여 기동 운용하는데 따른 개념으로서 작전사령관의 통제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고려된 것이다.

V. 결 론

해군의 전략기동함대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이제 더 이상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미래의 해전양상에 해상전투는 수상, 수중 및 공중전력이 입체적으로 통합 운용되는 종합적 해전양상이 일반화되고 해상 무기체계가 보다 다양화할 뿐 아니라 사정거리, 정밀도, 파괴력 및 운반체의 속력증가 등에 따라 기동성이나 세력 집중보다는 혼성세력들간의 상호지원 및 통합적 운용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이다.

또한 작전영역의 확장과 합동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해군의 해상전력투사, 즉 대지공격 역할이 보다 증대될 것이고 초수평선 작전이 보편화될 것이며 영토 밖에서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이익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 이외의 작전이 수행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해군력이 향후 10~15년 동안에 이러한 고도의 질적 우수성을 갖는 기술집약적 전력으로 구성되는 것은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것의 군사적 응용력이 병행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함대편성은 해양거부형 전력수준의 해역함대로서 책임해역내 북한 및 주변국의 동향을 억제하고 도발시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기동경비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해역함대능력으로는 적지 중심작전 능력이 미흡하므로 합참의 합동작전개념과 합동전장 운영개념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해역함대의 능력을 벗어나는 위협에 대응하거나 해역함대의 책임해역을 벗어난 원거리의 해양작전을 위한 작전능력은 전무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전략기동함대를 보유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전략기동함대가 구성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구역을 작전구역으로 하며 필요시 바시스가루 해역이나 남지나 해역까지 전개하여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 등 미래의 주변환경에 전략적이며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략기동함대는 다양한 분쟁형태에 대한 현장 대응수단으로 활용되며 국제협력 활동지원 군사외교 및 위기관리 등 국가정책의 수행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직선기선 발표, 중국의 영해확대 주장 등으로 인해 동북아의 “바다에서의 소리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변국과의 국익 보호를 위한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재의 해군전력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연안작전의 범주에서 벗어나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동함대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안녕과 미래에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서 시급한 편성이 요망되며 이는 대륙적인 사고와 항공우주 사고에 익숙한 인사들의 마음을 바다 위에 진수시키기 위한 우리 해군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논문 및 단행본

- 강영오, “해양안보환경 전망과 기동함대의 역할”, 국방논집 제35호, 1996.
- 권태영, “21세기 군사혁신과 전쟁양상”, 합참지 '97년 7월호
- 김영길, “미래해상전 수행개념 : 망중심 전투개념”, 주간국방논단 제761호, 국방연구원, 1999.
- 김정익, “증원전력을 위한 미군의 기동능력”, 국방정책연구, 2000년 봄호
- 노 훈, “군사교리와 조직체계의 혁신개념”,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 한국국방연구원, 1998.
- 박종원, “미 해군의 함대전투실험”, 해양전략 제105호, 해군대학, 1999.
- 박휘락, 「현대군사연구」, 법문사, 1998.
- 이정수, 「제2차 세계대전 해전사」, 양우문화, 1999.
- 장문석, 김현기,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미래전략 선택방향”, 정책연구보고서 98-18, 국방대학교, 1998.
- 국방백서 2000.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0 합동작전」, 1998.
- _____, 「합동기본교리 요약집」, 1999.
- _____, 「합동전장운영개념서」, 1999.
- _____,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집」, 1998.
-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1999.
- 해군본부, 해군사(4), 1963.
- _____, 「해군비전 2020」, 1999.
- _____, 「해군용어집」, 해일교 1-1, 1998.

2. 기 타

- 신동아 2000년 7월호, 2001년 9월호
- 월간조선, 2000년 11월호
- 주간한국, 2001년 3월 28일
- 민중서림, 「옛센서국어사전」, 2000년
- 인터넷, <http://kida.re.kr/jugan/jugan779.htm>
- Military Ballance 2000.